소소한 행복을 함께하는 성북구 사람들

스몰스파크 우리들의 이야기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성북장애인복지관

목차

PART 1 스몰스파크 사업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04

PART 2 스몰스파크 사업 소개 06

PART 3 우리들의 이야기 09

추억이 방울방울, 석관동 '동네 친구들' 10
진정한 친구가 된 '민들레' 12
20대 청춘, 함께 추억을 써내려가는 '지조' 14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친 '중계문화사랑3040' 16
함께 하며 '행복만들기' 18
감정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힐링모임 '감성충전' 20
함께 행복하자! '동행' 22
나눔을 실천하는 '멋진 언니와 동상 짱!' 24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다 같이 '동네한바퀴' 26
우리 동네에서 만들어가는 인연 '사방팔방 자립자조모임' 28

PART 4 스몰스파크 모임원의 소감 한마디 30

PART 5 우리들의 추억 33

PART 01

스몰스파크 사업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PART 01

스몰스파크 사업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도, 편하게 바람 쐬러 나가기도 어려워 모두 작년과는 조금 다른 한 해를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일상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몰스파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북장애인복지관은 2019년도부터 서울시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스몰스파크(Small Sparks)'는 작은 불꽃이 모여 큰 불꽃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뜻으로 2019년에는 9개의 모임으로 작은 불꽃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담그기, 마라톤, 맛집탐방, 배움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모인 불꽃들은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앞장섰습니다.

2020년 올해는 총 10개의 모임이 함께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만남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동네 친구가 생겼어요.", "비장애인 주도가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임을 꾸려나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동네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등 스몰스파크 참여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지역사회 환경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2019년을 비롯하여 2020년도 여러분들이 보여준 작은 변화는 지역사회에 큰 불꽃이 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좋은 뜻으로 스몰스파크에 참여해 주시고 활동을 지속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성북장애인복지관 관장 **김 진 우**

PART 02

스몰스파크 사업 소개

PART 02 스몰스파크 사업 소개

‘스몰스파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0년 기금배분심사 진행사진

스몰스파크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기관에 신청서 접수 후 기금배분심사에 참여합니다. 통합성, 공공성, 연속성을 기준으로 한 심사 진행 후 최종 선정이 되면 활동지원금(50만원 이내)이 지급됩니다.

> 2020년 사업설명회 진행사진

선정된 모임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설명회를 통해 모임활동의 취지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2019년 장애바로알기교육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활동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도를 높이고자 모임원들을 대상으로 장애바로알기교육이 진행됩니다.

> 2020년 현장간담회 진행사진

모임 활동 중 현장간담회 진행을 통해 활동 내용 공유와 차후 활동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현장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활동내용을 공유합니다.

> 2019년 옹심이, 스몰스파크 성과공유회 진행사진

이후 각 모임들의 한 해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평가회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례집으로 모임들의 일년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PART 03

우리들의 이야기

※사례집에 등장하는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PART 03

우리들의 이야기(친목)

추억이 방울방울, 석관동 '동네 친구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얘들아, 우리 저기 가보자! 다들 여기 앉아!"
아이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경복궁을 가득 채웁니다. 오늘은 석관동 동네 친구들이 어린이 뮤지컬을 감상하고 경복궁 나들이를 하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던 아이들이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 친구도 만나고 실컷 뛰어놀며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매달 새로운 곳에서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며 아이들은 추억을 쌓아갑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만남인 '동네 친구'는 민호 어머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움반에 다니는 민호가 학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을 품고 마음 맞는 어머님들을 찾아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여섯 명의 해맑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님들의 바람처럼 유민, 지원, 은진, 현서, 현규는 배려와 이해의 덕목을 배우고, 현호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즐겁고 바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이 달라서 서먹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니깐 다 같이 친해졌어요."
"앞으로 학교랑 밖에서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다음 만남이 기다려져요!"
여섯 명의 친구들에게 모임을 통해 변화된 모습, 앞으로 바라는 점에 대해 질문했을 때 돌아온 답변입니다.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장애', '다름'이라는 단어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장애의 유무로 구분 짓지 않고(장애에 대한 장벽 없이), 이미 모임명처럼 '동네 친구'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친구들끼리 재미있는 추억을 쌓는 것에만 집중하는 아이들을 보며, 오히려 어른들의 '장애'에 대한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편견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머님들 간에도 끈끈한 정이 생겼습니다. 또래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이해하게 된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함께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모임은 어느새 어머님들끼리 지지하고 격려하는 만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6명의 '동네 친구'들이 앞으로도 예쁜 추억과 소중한 우정을 다져가길 바랍니다. 먼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지금을 되돌아보며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든든한 친구 사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가 된 '민들레'

"안녕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에요?"라며 어색하지만 따뜻한 첫인사를 주고받으며 시작한 모임이 있습니다. 민들레 모임의 첫 만남은 스몰스파크 설명회였습니다. 하지만 어색함도 잠시 번호를 교환하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들레 모임의 첫 활동은 혜화역에서 지조 모임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나이, 좋아하는 관심사가 같은 지조와 민들레 모임은 매 회기 마다 함께 활동을 진행하며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였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여서 그런지 민들레 모임은 빠르게 친해지게 되었고 모임 활동 외에도 서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고민을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매 회기 활동주제를 정하는 민들레 모임은 코로나19가 악화되어 사회적거리두기가 격상되자 비대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MT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모임원들의 의견에 서툴지만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ZOOM 활용이 익숙치 않은 모임원들은

카페나 서로의 집에서 ZOOM 활용법을 알려주며 비대면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맛있는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며 여러 가지 게임을 함께 하면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들레 모임은 비대면으로 MBTI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MBTI 진행 후 결과를 ZOOM으로 공유하면서 서로의 성향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대면으로 활동을 지속하던 중 코로나19가 완화되어 드디어 얼굴을 보며 활동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보드카페에 가서 재미있는 보드게임을 하며 그동안 그리웠던 얼굴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겼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친구예요.”라는 말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있는 민들레 모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20대 청춘, 함께 추억을 써내려가는 ‘지조’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함께하며 스몰스파크에 대해 알게 된 다정, 광진, 정현씨는 그 매력에 푹 빠져 올해 다시 한번 뭉치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함께 한 누나로부터 스몰스파크 추천을 받은 찬형씨도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하철 타는 것을 좋아해요.”
첫 만남 때 모임원 간의 공통점을 찾는 대화에서 나온 찬형씨의 말에 “저도!”, “나도 좋아해요!”라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좋(조)아하는’ 마음이 똑같은 ‘지조’가 탄생했습니다.

20대 활기찬 청년들로 구성된 지조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쌓아갑니다. 낙산공원으로 떠나 야경도 보고, 재미난 보드게임도 합니다.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어려워지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게임을 출제하여 맞추는 온라인 엠티, 친구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MBTI 활동을 기획하여 직접 만나지 못해도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임원은 어느새 서로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정, 광진, 정현씨는 봉사자, 실습생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 사이로 발전한 것 같아 좋다고 했습니다. 광진씨와 찬형씨는 가끔 통화를 주고 받으며 둘만의 비밀이야기도 만들어갑니다. “이건 광진이 형과 나만의 비밀이야기야~”라고 누나에게 말하는 찬형씨를 보며 관계가 깊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찬형씨는 지조 모임을 통해 나이대가 비슷한 새로운 형, 누나들과 새로운 것들을 하게 돼서 정말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지루해하지 않고 잘 들어주며, 마음을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표현했습니다. “스몰스파크는 행복이에요. 지루했던 제 삶에 행복이 되었거든요!”라며 밝게 웃는 찬형씨의 모습에 저희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스몰스파크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지대, 들어갈 때 나갈 때 모두 기분 좋은 미용실, 서로 맞춰가는 테트리스라고 표현하는 지조! 스몰스파크를 계기로 진실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두터운 친구 관계로 발전한 지조가 앞으로도 그 우정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PART 03

우리들의 이야기(문화 · 여가)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친 '중계문화사랑3040'

중계문화사랑3040은 중계동 성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3~40대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가족 외에는 또래 지지체계가 없어 고립된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발달장애인 혁수씨를 중심으로 비장애인 3명이 함께 문화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중계문화사랑3040은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첫 만남에는 각자 취미를 이야기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경희씨와 야구를 좋아하는 지욱씨, 노래방과 놀이공원이 가고싶다는 혁수씨의 의견이 모여 중계문화사랑3040의 활동 계획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모임원들은 영화관람을 진행하였습니다. 영화 관람 후 맛있는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래와 처음 진행하는 문화활동에 혁수씨는 어색함이 없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재미있게 어울리며 활동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혁수씨가 가고 싶어 했던 놀이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놀이기구를 함께 타면서 모임원들은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계문화사랑3040은 서로가 함께일 때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하는 모임입니다.
평범한 것들이 특별해지는 요즘 중계문화사랑 3040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PART 03

우리들의 이야기(배움)

함께 하며 '행복만들기

행복만들기는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해피워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스몰스파크 모임을 모집하는 공고문을 보고 마음이 맞는 직장 동료들이 의기투합했습니다.
모임을 통해 단순히 콘텐츠를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 등을 습득하여 한 단계 성장하고자 '배움 활동'을 주제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역할분담〉

- 대표 : 원데이클래스 예약 및 체크카드 보관
- 모임일정 조율 및 확정 문자 발송
- 부회장 : 출석체크, 지각 발생 시 전화연락
- 총무 : 각종 결제 및 영수증 보관

〈규칙〉

1. 지각하지 않기
2. 활동 중 단독행동 하지 않기
3. 싸우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 존중하기
4. 조원이 돌아가며 그날의 식사 메뉴 정하기

위 내용은 모임이 구성된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직접 정한 서로의 역할분담과 지켜야 할 규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더불어 모임활동 계획도 고민하여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조원들의 의사표현과 자기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첫 활동이었던 밀랍초를 만드는 원데이클래스에서 직접 정한 역할 분담과 규칙을 준수해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모여 배움활동을 통한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즐기는 행복만들기!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PART 03

우리들의 이야기(맛집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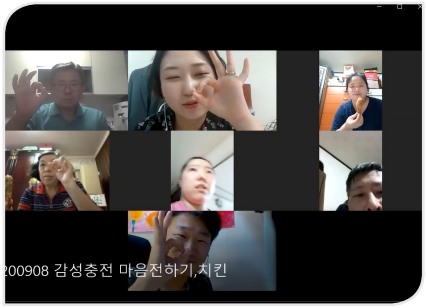
감정을 풍부하게 느낄수 있는 힐링모임 '감성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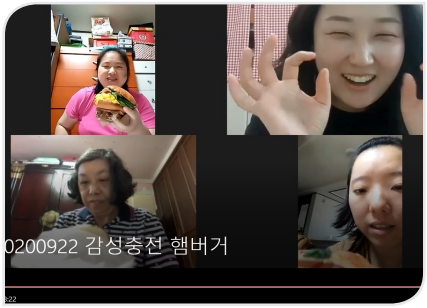
감성충전은 맛집을 사랑하는 모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식에 남다른 철학을 가진 7명의 모임원들이 함께 맛집을 방문하며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보다 안정화 되었던 시기에 첫 만남을 가진 감성충전은 중국집에서 첫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메뉴를 시키고 대화를 하며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 주변 옷가게에서 아이쇼핑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격상되면서 대면모임을 할 수 없게 된 감성충전은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이번주는 돈까스를 먹을까요?", "좋아요! 저는 치즈돈까스를 먹을래요." 모임 활동 시 마다 음식주제를 한 가지 씩 정하면 총무인 선아씨가 각 모임원의 집으로 배달을 시켜줍니다. 음식이 도착하면 ZOOM으로 모임원들과 인사를

하고 서로의 집에 도착한 음식을 보여주며 소개합니다. 배달 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안부인사와 근황을 공유합니다.

“회장님 맛있으세요?”, “네. 돈까스가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직접 만나지 못해도 온라인을 통해 감성충전은 행복한 모임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총무님이 배달 시켜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총무님 덕분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칭찬과 배려가 끊이지 않는 감성충전은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모임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혼자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얼굴만 봐도 좋은걸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감성충전은 오늘도 좋아서 함께합니다.

PART 03

우리들의 이야기(문화・여가)

함께 행복하자! '동행'

동행 모임은 옹심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옹심이를 통해 맺은 첫 인연이 2020년 새로운 모임원들을 만나 스몰스파크로 확장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2명, 비장애인 4명으로 구성 된 동행 모임은 '함께 행복하자'라는 모임명처럼 매 활동 마다 문화여가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행은 활동 시 마다 발달장애인인 석진씨가 사진을 찍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행복한 모임원들의 미소를 담은 사진은 석진씨가 이 모임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진씨 이번에 찍은 사진을 톡방에 올려주세요.", "사진이 엄청 잘나왔네." 모임 활동이 끝난 후 모임원들은 석진씨가 찍은 사진을 보며 하루를 보람차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지민씨가 그린 그림

모임의 또 다른 보물 지민씨는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분위기메이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림솜씨가 뛰어난 지민씨는 단체 톡방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올립니다. 수준급 그림솜씨에 모임원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림이 너무 멋있다.”, “지민이 정말 화가 같아.” 지민씨는 모임원들의 칭찬에 힘입어 더욱더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동행은 발달장애인인 석진씨와 지민씨가 주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모임내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역할을 맡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모습은 지역사회 장애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있습니다.

PART 03

우리들의 이야기(나눔활동)

나눔을 실천하는 '멋진 언니와 동상 짱!'

'멋진 언니와 동상 짱!' 모임원분들은 만나게 된 계기부터 특별합니다. 마을 내 독거 어르신에게 밑반찬을 나누고, 추운 겨울에는 이웃을 위해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누는 등 솔선수범하여 이웃을 돕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같이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 어느새 동네에서 커피도 마시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 중 만능 재주꾼인 원정님이 동생들에게 비즈공예를 가르쳐주며 모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비즈공예란, 얇은 실에 알록달록 빛나는 구슬을 꿰어 예쁜 팔찌, 안경줄, 가방 고리 등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하나의 반짝이는 모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선생님들의 만남과 유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란 힘이 든 법인데, 이렇게 마음 맞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 선생님들도 너무나도 든든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선생님들은 모임 활동을 통해 만든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첫 회기에 만든 비즈공예 안경줄, 두 번째 회기에 만든 에코백, 마지막 회기에 만든 레몬청도 여러 개를 만들어 지인과 지역주민에게 나눌 방법을 고민하십니다. “우리는 모임 활동을 하면서 꼭 나눔도 함께하려고 해요. 우리가 다 가지면 뭐 해요. 나눔이 곧 행복이죠.”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들을 보며 진정성 있는 나눔에 대해 배우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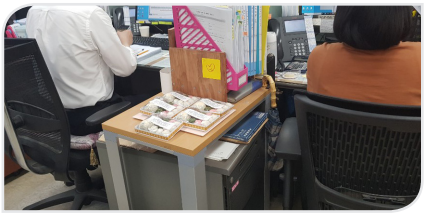
스몰스파크는 ‘기쁨’이라고 표현하며 이제는 언니, 동생의 얼굴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각각 저마다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달라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서로를 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피를 나눈 언니와 동생 사이는 아니지만 마치 마음을 나눈 언니와 동생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반짝반짝 빛나는 우정을 키워가시길 응원합니다!

PART 03

우리들의 이야기(자립)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다 같이 '동네한바퀴'

석관동 자립생활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나현씨와 민주씨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석관동 주변에는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이웃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함께 동네를 알아갈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동네한바퀴는 시설에서 퇴소한 후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게 된 나현씨와 민주씨를 중심으로 결성 된 모임입니다. 나현씨와 민주씨는 자립생활주택에 이사 온 첫 날 스몰스파크 모임원들과 주변 이웃들을 방문하며 떡을 나누었습니다. 떡을 나누면서 주변에는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알아보고 나현씨와 민주씨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답니다.

주변 편의시설 파악 후 나현씨와 민주씨는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선물들을 스몰스파크 모임원들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제비누, 디퓨저, 약밥 등 다양한 선물을 직접 만들어 주변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심 같이 먹을래요?", "반찬을 만들었는데 나눠 먹어요." 주변 이웃들은 나현씨와 민주씨에게 받은 따뜻한 마음을 관심과 사랑으로 되돌려 주기 시작했습니다. 스몰스파크를 통해 나현씨와 민주씨는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만들어가는 인연 '사방팔방 자립자조모임'

2020년 3월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방팔방 자립자조모임은 시설에서 살다가 자립생활 선배, 자립생활주택입주자, 자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꾸준히 만남을 지속하는 사방팔방 자립자조모임! 한 번은 회의를 하고, 다른 한 번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여행, 문화 여가 활동을 합니다.

사방팔방 자립자조모임의 회의는 한 명의 의견이 아닌, 모임원 전체의 의견을 듣고 활동 계획을 정하는 시간으로 이 모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함께 꾸려나가는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의견이 대립할 때도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정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요.'라는 장훈씨의 말을 통해 회의의 의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단순히 계획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친분을 쌓으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와 자립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규진씨와 기민씨는 대화를 통해 각자 사는 삶을 이야기 나누는 것이 모임을 지속하며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해진씨를 비롯한 모임원 대부분이 집에서 tv 시청을 하거나, 게임을 하며 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가끔 무기력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는데, 사방팔방 자립자조모임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집 밖으로 나오며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유선씨는 다 함께 외부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과 같은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모임 활동이 모임원들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히는 계기도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모임에 합류하게 된 윤희씨, 정민씨, 유정씨도 앞으로의 모임 활동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볼 수 있는 강화도도 가고, 롯데타워에 올라가 경치도 보고, 신나게 배드민턴도 하며 다 함께 행복한 추억들을 쌓아갈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두지 않고 서로 웃으며 장난도 치고 즐기며 활동하는 사방팔방 자립자조모임의 발전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PART 04

스몰스파크 모임원의 소감 한마디

PART 04 스몰스파크 모임원의 소감 한마디

발달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없었고 잘 몰랐죠. 그런데 모임을 함께 해보니깐 모임원들 이름도 잘 기억하고 소통하는데도 문제가 없었어요. 또 사회성도 좋아서 모임활동을 재밌게 이끌더라구요. 활동이 점차 진행되면서 장애인이라는 생각보다 '그냥만나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몰스파크는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만남' 같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서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죠.

-동행의 지은씨-

모임활동을 하면서 제가 변화된 점이 있어요. 저는 원래 규칙은 무조건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성격이에요.
최근에 다같이 보드게임을 했는대, 형이랑 누나들은 게임을 하면서 가끔 규칙을 바꾸더라구요. 그때 새로운 재미를 느꼈어요!
'규칙을 바꿔도 게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임활동을 통해 형, 누나들이랑 친해진 점이 가장 좋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비장애인 여러분!
장애가 있다고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장애는 틀린것도 병도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친하게 지내요!

-지조의 찬형씨-

PART 05

우리들의 추억

20200908 감성충전 마음전하기,치킨
동네친구 야! 함께놀자

자립자조모임 사방

발행처 성북장애인복지관
편집인 성북장애인복지관 **서주현 · 송다검** 사회복지사
주소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0
전화 02)915-9200
팩스 02)915-9207
홈페이지 http://sb.sgwon.or.kr/
이메일 sgwsb@hanmail.net
발행일 2020. 12.

함께한 사람들

송권수 박정환 조경화 한정욱 박보은 문공자 이영찬 임기하 김영민 김태희 박무준 최현진
정애영 정유석 임선주 김영석 손원주 김희숙 박보금 신영숙 민병현 함소현 임지혜 임정욱
전기춘 김다은 김광래 함형찬 이현정 정현호 한지민 고은유 조서현 백규현 백지민 김해구
정규웅 임기하 하효선 주장욱 김유진 김민정 김현희 신숙희 이원희 이금자 이명자 신호숙
이유진 임지영 조경빈 최진성